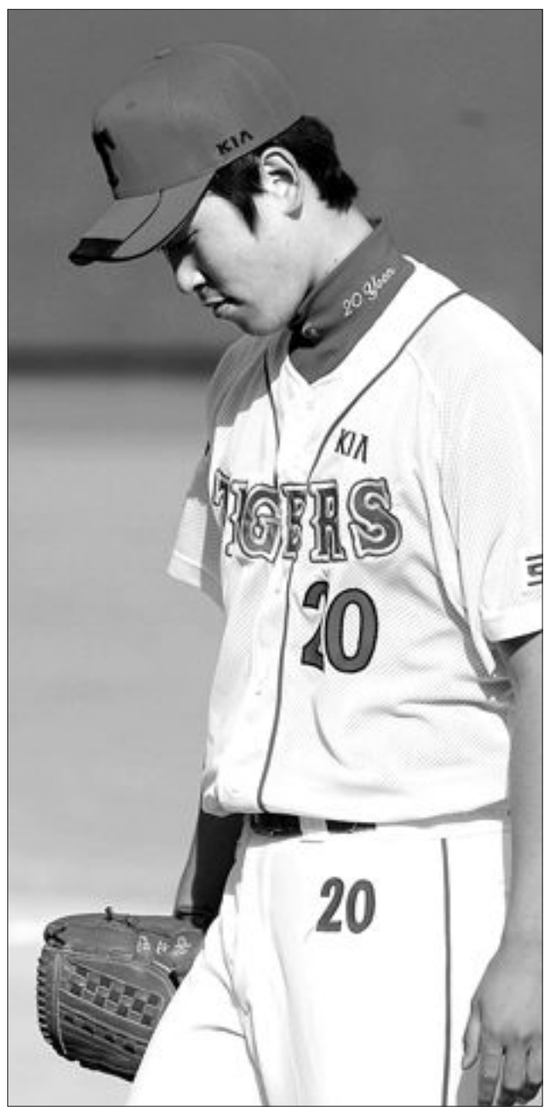
KIA 에이스 윤석민 시즌 17패째…올 최다패 불명예

"잘 던졌는데 너무 속상해"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21·사진)이 지난 11일 광주 한화전에서 1회초 시작하자마자 3타자 연속 사구(死球)를 허용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시즌 17패째를 당했다.

그동안 3타자 연속 사구를 허용한 투수는 3명이 있었지만 윤석민이 이날 기록한 '경기개시 3연속타자 4구'는 프로야구 26년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또 윤석민의 17패는 올 시즌 8개 구단 투수 가운데 최다패로, 역대 한 시즌 최다패 공동 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 2002년 김영수(당시 롯데·18패) 이후 가장 많다.

KIA의 잔여경기가 13게임 남은 상황에서 윤석민이 앞으로 2~3번 정도 더 선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패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올 시즌 팀 1선발의 영예를 안은 윤석민이지만, 중간과 선발을 오간 신용운(8승)보다도 승수가 못할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있다.

팀 타선 도움 못 받아 아쉬움 커

死球 15개…리오스와 함께 '최다'

시즌 초반엔 팀 타선이 돕지 않았고, 후반엔 체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번번히 무너지고 있다.

경기당 평균 7.2이닝씩을 던져 두산의 다니엘 리오스와 대표적인 '이닝 이터'(inning eater)로 불렸던 그는 후반기 27경기에서 160이닝을 던져 경기당 평균 투구 이닝이 6이닝으로 대폭 감소했다.

윤석민은 또 11일 현재 단숨에 몸 맞는 볼을 많이 던진 투수 랭킹에서 리오스와 더불어 공동 1위(15개)로 올라섰다.

2005년 입단 후 2년간 중간 및 마무리 투수로 뛰어온 윤석민은 지난해 63경기에서 94.2이닝을 던진 게 최고 기록이다.

선발로 돌아선 올해 첫 해 체력이 달리면서 시즌 막판 몸 맞는 볼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윤석민은 8월28일 두산전에서 1개를 기록한 뒤 9월4일 두산전에서 3개를 기록하는 등 3경기 연속 사구(死球) 행진 중이다.

8월1일 SK전 이후 7경기에서는 5점 이상 실점을 5번이나 했다. 리오스, 브라운, 레이번 등이 나름 제구력을 갖춘 투수여서 윤석민의 컨트롤 난조와 경험 부족을 탓할 수도 있으나 최근 경향은 체력 저하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에 140㎞ 후반의 빠른 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를 갖춘 윤석민이지만 빈약한 타선탓에 잘 던지고도 패하는 경기가 많다보니 후반기 들어 더욱 힘이 빠진 모습이다. 시즌 평균 자책점이 3.66으로 랭킹 10걸에 들 정도로 호투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장차 KIA 마운드를 이끌어갈 윤석민이 더 큰 좌절을 겪지 않도록 체력보강 등 구단의 특별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최근진·최숙자 역도 3관왕

남 52㎏·여 56㎏급서 영예

광주 우대성은 수영 2관왕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최근진〉 〈최숙자〉

역도에서 최숙자(41)와 최근진(31)이 3관왕에 올랐으며 우대성은 수영에서 2관왕에 합류했다.

광주와 전남은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틀째인 13일 역도와 수영등에서 선전을 펼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숨가쁜 레이스를 펼쳤다.

광주는 금 21개, 은 22개, 동 11개를 획득해 메달순위 8위를 달리고 있으며 전남은 금 3, 은12, 동 4개를 따내 메달순위 최하위를 마크하고 있다.

최숙자는 상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여자 56㎏급에서 광주광역시 선수단 최초 3관왕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질세라 최근진이 남자 52㎏에서 역시 3관왕에 올라 광주선수단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우대성은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배영 100m에서 금빛물살을 갈라 2관왕에 등극했으며 볼링 여자 복식 조미경·조성덕과 남자 개인 송영섭, 남자 복식 김동일·김정호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양궁 김용옥과 육상 남자 이경대, 수영 여자 조장문, 탁구 남자 개인 김공룡, 김영건, 김정길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형희(여 역도), 김란숙(여, 양궁 개인), 윤 용(남 역도)은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구희상(남 역도), 강대웅(남 양궁 개인), 김홍규(남 양궁 개인), 우대성(남 수영), 조재관(남 탁구)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은 이후민이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8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육상과 역도에서 금 소식을 전했으나 전체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관중석 돌진' 안정환 벌금 1천만원 징계

네티즌, 야유 관중에도 비난 글 쏟아져

프로축구 K-리그 2군 경기 도중 상대 팀 서포터스의 야유에 격분해 관중석으로 뛰어들었던 안정환(31·수원 삼성·사진)에게 벌금 1천만원 부과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2군 리그 경기 도중 관중석에 난입했던 안정환에게 출전정지 없이 벌금 1천만원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안정환은) K-리그 구성원으로서 선수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며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19조 1항에 있는 '경기장 내외에서 K-리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1천만원은 K-리그 징계 사상 벌금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선 안정환에게 야유를 보낸 서포터를 향한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숙하지 못한 관전문화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형욱 축구해설위원은 "일부 서포터는 외국과 비교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사례인 만큼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관중과 선수 사이에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 관중은 비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형택 ATP 베이징 오픈 8강 안착

10일 막을 내린 메이저대회 US오픈에서 7년 만에 16강 진출을 재현한 이형택(세계랭킹 39위·삼성증권)이 총상금 50만달러가 걸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베이징오픈에서 단식 8강에 안착했다.

6번 시드 이형택은 12일 중국 베이징 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2회전에서 독일의 비욘 파우(162위)를 1시간 20분 만에 2-0(7-6〈7-4〉 6-1)으로 가볍게 누르고 8강이 겨루는 3회전에 진출했다.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1세트를 따낸 이형택은 2세트 들어 서브의 위력이 되살아나면서 첫 서브와 둘째 서브 성공률에서 모두 파우를 압도했고 특히 서브 리턴에서도 60%가 넘는 성공률로 22%에 그친 상대를 쉽게 눌렀다.

이형택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세계 3위 이반 류비치치(크로아티아·현 12위)를 격파하며 4강에 진출했고 여세를 몰아 도쿄에서 열린 AIG 일본오픈에서 드미트리 툴스노프(러시아·당시 21위), 토미 로브레도(스페인·당시 7위) 등을 잇달아 제압하고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40위권대에 진입한 좋은 기억이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한국女배구 대만 꺾고 3승2패

올림픽 세계 예선전 티켓 획득

한국 여자배구가 제1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대만을 꺾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세계 예선전 출전권을 따냈다.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열린 8강 라운드 다섯 번째 경기에서 레프트 김민지(GS칼텍스)와 배유나(한일전산여고), 라이트 나혜원(GS칼텍스)의 활약으로 대만을 3-0으로 완파했다.

한국은 13일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호주와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스포츠중계

13일(목)

▲메이저리그〈뉴욕Y-토론토〉(08 : 00·Xports)

▲자넷리특집당구 코리아〈코리아-월드 Day-2〉(14 : 00·MBC ESPN)

▲제61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14 : 00·KBSN SPORTS)

▲제27회 장애인체육대회(14 : 10·KBS 1)

▲프로야구〈삼성-한화〉(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한화〉(17 : 40·KBSN SPORTS, 17 : 50·SBS 스포츠)

▲일본 프로야구〈야쿠르트-요미우리〉(18 : 20·MBC ESPN)

▲제14회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대회(22 : 00·KBSN SPORTS)

14일(금)

▲2007 PGA 더투어 챔피언십 1R(03 : 00·SBS스포츠)